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6호 【루계 제26190호】 주체107(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대중적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지로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자

증산돌격운동에로 추동하는 조직정치사업 활발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이 사상공세작전을 과감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선전선동력량을 발동하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짜고든데 맞게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 도당직외강연강사들을 비롯한 도안의 수백명의 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가 조직되여 주요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활동이 박력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지금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단위들인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방직공장과 신도군의 전투장들에서 맹렬히 벌어지고있는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혁신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한편 도예술선전대와 시, 군기동예술선동대들로 무어진 집중경제선동대들도 대중의 심금을 틀어잡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위력한 선동력량인 도안의 선동원들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고있다.

인민경제의 부문별로 전형단위를 선정한데 맞게 그 단위 당조직들에서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시범을 창조하게 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증산돌격운동에로 고무추동하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이 온 도에 더욱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도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들인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룡등탄광, 룡년광산, 봉화화학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정주수산사업소의 당조직들에서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해나가는 과정에 창조된 경험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도안의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한층 높여주었다.

특히 가을걷이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데 맞게 선전선동부에서는 농업부문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게 들이대게 하고있다.

평도업적단위들인 은천군 운하협동농장과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이런 조직정치사업은 시, 군당조직들에서 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그 실효를 계속 높여나가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구장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한편 협동농장들의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선동원들이 포전들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나가게 하였다. 하여 가을걷이전투에서 도적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하였다.

창성군당위원회에서는 군문화회관 예술소조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금 군안의 5호담당선전원들이 박력있는 선전활동으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구성시당위원회에서는 시계급교양관의 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뭇고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총궐기, 총태진할데 대한 내용의 경제선전활동을 벌리도록 하고있다.

여기에 군안의 선동원들도 합세하여 계급교양의 실효가 당면한 영농전투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정주시, 선천군, 곽산군, 운전군, 태천군을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가을걷이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진공적으로 벌어지는 사상공세작전으로 하여 지금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혁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중요대상설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보내줄 대상설비들을 제기일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참모부에서는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료차생산조직과 로력보장사업을 앞세워 매일 맡은 대상설비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진행하고있다.

신로탕주철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이어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고 공정간 련계를 강화하면서 주물품소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주강직장과 단조직장, 제관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많은 량의 규격품소재를 앞당겨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유압식굴착기바가지, 기관틀, 부분품제작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하루계획의 2배이상을 수행할 목표를 내세운 유압기구직장, 청년직장, 정밀가공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가공지구와 앞선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각종 부속품, 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형조기지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도 능률적인 조립지구들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매일 맡은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훈창조의 불길은 자재보장을 맡은 전투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자재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기술자들은 유압식굴착기부분품의 수명을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종전보다 성능이 좋은 유압설비들을 생산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이밖에도 대상설비생산의 속도와 질을 높일수 있는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는 련일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과학기술로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어간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로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과학연구활동을 맹렬히 벌려온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집단들이 올해에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지금 대학의 해당 무시로는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연구과제들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연구과제수행에 대한 소식들이 련일 들어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학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과학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연구력량편성과 연구조건보장사업에 힘을 넣었다.

올해에 여러 단과대학, 학부성원들을 망라한 대학의 연구집단들이 평양무궤도전차공장현대화를 위하여 10건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이 맡은 고압-닫촌칠갑전실을 위한 연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하여 대학의 모든 연구집단성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련이어 대학의 연구집단은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 통합생산체계개발을 비롯한 여러건의 연구과제들을 맡아 하나하나 결속해나가고있다.

이렇게 대학의 연구집단들은 창조와 탐구로 날과 달을 이어가며 여러 대상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되여 목장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평양화장품공장, 단천발전소건설장 등에 파견된 연구집단들도 전력, 금속, 화학, 경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과제수행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고있다.

특히 평양화장품공장에 달려나간 대학의 연구집단은 비누포장공정 자동조종체계를 비롯하여 여러건의 과제를 결속하고 색감생산공정에서 제기되는 10종의 설비를 제작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버섯공장에 파견된 대학의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도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환경오염을 막고 무균화를 실현하며 버섯밭호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학에서는 올해에 기초과학, 첨단과학연구부문에서도 세계적인 패권을 쥐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많은 론문들을 발표하였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치는 과정에 여러건의 연구성과들이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8》에 많은 성과자료들과 정보기술제품들을 출품하였으며 그가운데서 2018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 2018년 10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 2018년 정보기술우수제품들도 나왔다.

지금 대학의 연구집단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경축할 기세드높이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학연구과제들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마감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낟알털기 성과적으로 결속

평양시에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평양시안의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이것은 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낟알털기전투의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수놓아온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낟알털기를 제때에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구역, 군들에서 낟알털기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안의 농촌들에서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만경대구역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높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구역에서는 낟알털기를 최단기간에 와닥닥 끝내기 위해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파견하여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봄내여름내 애써 가꾸어온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주인답게 깐지게 해나갔다.

강동군에서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군일군들은 청임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 화상회의를 통하여 앞선 단위들을 따라배우고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특히 농장들에서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각별한 힘을 넣도록 하였다.

사동구역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낟알털기를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려는 불타는 열의밑에 농기계들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며 매일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였다.

형제산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구역,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주타격전방에 기어이 승전고 높이 울릴 비상한 각오안고 낟알털기에 떨쳐나섬으로써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였다.

본사기자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적극 추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지금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지를 최대로 분출시키며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적극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천여t의 나무종자를 채취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게 할 불타는 열의밑에 종자채취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현재까지 천여t의 종자를 채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에서는 도, 시, 군들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나무종자채취계획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자강도에서 나무종자채취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도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하면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이와 함께 도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종자채취과제를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였다.

전천, 우시, 초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종자채취에 앞장섰다.

전천군의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짧은 기간에 나무종자를 많이 거두어들이였다. 우시, 초산군 일군들은 자체실정에 맞게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량강도에서 더 많은 나무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대홍단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고장의 산들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열의밑에 나무종자채취에 힘을 집중하였다.

김형직군에서는 단위별채취량을 정확히 주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종자확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온성군에서도 력량을 집중하여 많은 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선시에서도 나무종자채취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미래,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에서 종자채취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여러가지 나무종자를 짧은 기간에 거두어들이였다.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나무종자채취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김강철

수백km의 강하천정리 진행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정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수백만㎥의 강하천바닥파기, 장석공사 등이 힘있게 벌어져 연 수백km구간의 강하천이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국토환경보호성과 각지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뜻깊은 올해에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함경남도에서 강하천정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신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여러 하천들을 정리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였다. 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연 수십리구간에 달하는 강하천정리를 진행하고 지피식물들을 심어 제방뚝을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북청군에서 강하천정리를 통이 크게 질적으로 하기 위한 공사가 본때있게 벌어졌다.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끓이며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하천바닥을 깊이 파내고 제방을 튼튼히 쌓아 주변의 과수원들이 큰물피해와 랭습피해를 받지 않게 하였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정리에서 기세를 올리였다.

구장군에서는 여러 강하천들의 바닥파기와 제방공사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로력과 륜전기재들을 집중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만㎥의 강하천바닥흙을 파내고 제방을 쌓은데 이어 장석공사를 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신의주시와 운산군, 선천군, 의주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도 강하천정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라선시에서도 강하천정리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시일군들은 여러 대상에 대한 공사가 동시에 그리고 립체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력량편성과 작업분담을 합리적으로 하고 설비와 자재보장을 따라세웠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계획된 구간에서의 강하천정리가 결속되였다.

본사기자 방영진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목표 90%계선 돌파

수도려객운수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수도려객운수국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금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을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각종 전동기들과 조종장치들의 조립이 전부 끝나고 내외부도색과 전기배선, 의장품조립을 비롯한 마감작업이 련이어 결속되는 속에 완성된 무궤도전차대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사관철하는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단위별경쟁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무궤도전차생산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전동기를 비롯한 무궤도전차의 중요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보장한 기세로 공기계통조립과 전기배선 등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각종 의장품들과 유리, 늠띠조립, 고무바닥판깔기를 비롯한 세부작업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무궤도전차제작에 떨쳐나선 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져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삐스에비기동대, 평천무궤도전차사업소, 서평양무궤도전차사업소, 모란봉삐스사업소를 비롯한 국아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하루하루의 실적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발휘되는 자신들의 애국충정의 높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과감한 돌격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협동품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삐스수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출입문제작에 필요한 협동품들을 제기일내에 제작하여 설치하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평양려객차고무제품공장의 생산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십대의 무궤도전차들에 리용될 바닥고무판들을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평양무궤도전차수리공장과 평양전차선공장의 로동자들은 무궤도전차의 정상운영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수십개의 부분품들과 전동기생산에 들어가는 동선을 비롯한 각종 협동품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전동기조종장치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전광판형식의 행선판들을 새로 만들어 려객들의 편의보장에 기여한 수도려객운수국의 기술집단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더 좋은 우리의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정 론

백두산기슭의 천지개벽

1

우리는 이해의 첫눈을 그렇게 보았다.

례년에 없는 폭염과 열풍속에 두차례나 삼지연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0월 세번째로 또다시 삼지연군건설장을 찾으시여 펑펑 내리는 흰눈속에 서계시던 그날의 영상,

이 나라의 산과 들에 마가을이 한창이던 그때 멀리 북변에 서계시는 우리 원수님 어깨우에 하염없이 내리던 사연도 많은 흰눈, 인민의 마음에도 그렇게 추억의 눈이 내렸다.

이 땅의 찬눈비 그처럼 많이 맞으시며 우리 원수님 새겨오신 헌신의 길, 우리 혁명의 고향군에 바쳐오신 못 잊을 로고의 날과 달들이 천만의 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쉼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아마도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이런것을 두고 하는듯싶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놀랍고 가슴이 벅차올라 무엇이라 할 말을 찾을수 없는 심정으로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치는 삼지연군건설장에 서있다.

천고의 밀림을 울바자로 두르고 거창하게 펼쳐진 드넓은 전투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이다. 붉은기의 바다가 장쾌하게 펼쳐지고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힘있는 노래소리가 격전장을 들썩다놓는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이다. 하루해가 저물어 어둠이 깃들면 건설장은 불야경을 이룬다. 위훈으로 하루를 보내고 창조로 새날을 맞이하는 삼지연전구, 순간의 멈춤도 없이 전진 또 전진하는 맹렬한 공격전의 기상앞에 북방의 강추위도 기가 꺾인듯 백두산기슭은 낮에도 밤에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기적창조의 활화산이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구가하는 우리 조국땅에는 거창한 창조대전들이 많다. 백두산아래 첫동네의 천지개벽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 시대를 격동시키는것인가.

평범한 건설이 아니며 보통의 창조가 아니다. 내 조국의 래일이 벅차게 안겨오고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위대한 인민의 힘과 기상이 긍지높이 어려오는 우리 조국의 축도이다.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본보기, 표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며 하신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나라가 전보한다는것은 도시와 함께 농촌과 어촌, 산간지대 할것없이 모든 지역이 다같이 발전하고 문명해진다는것이다. 외진 섬, 깊은 산골 어디에 살건 누구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며 이 세상 가장 복된 삶을 누릴 때 그것이 인민의 웃음넘치는 사회주의락원이 아니랴.

그 본보기, 표준이 바로 백두산아래 첫동네 삼지연군에 펼쳐지고있는것이다.

깊은 산골에 두줄기 철길이 뻗어가고 새 철도역들이 생겨났다. 루멋한 구획들을 이루며 전개된 건설장의 면모는 이 땅을 박차고 태여날 황홀한 산간문화도시의 자태를 환희롭게 그려준다.

그처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는 삼지연군건설은 우리 나라 건설부문에서 일대 비약기, 하나의 혁명으로 된다. 모든 건축물들이 다 특색이 있고 최고의 수준을 지향하고있다.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을 보아도 그렇다.

백두의 천연수림과 어울리게 뾰족지붕을 떠이고 일떠선 삼지연청년역은 겉모양부터 마음이 흠뻑 끌리는데 안으로 들어서면 더 희한하다. 려객들이 눈비를 맞지 않게 지붕을 씌운 역홀이며 렬차시간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설치된 영상표시장치를 비롯하여 모든 요소들이 산간지대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미가 결합되여 경탄을 자아낸다.

흔히 건축을 두고 시대의 자욱이라고 한다. 삼지연전역은 고난과 시련을 부시며 희망찬 미래에로 노도치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힘과 기상의 시위이다.

주저없이, 멈춤없이!

더 높이, 더 빨리!

우리는 백두산기슭에 고동치는 이 벅찬 숨결을 듣는다.

보라, 고난과 시련은 의연히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있지만 추호의 멈춤도 없이 노도치는 삼지연전역을.

올해에만도 세차례에 걸치는 우리 원수님의 삼지연군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이 땅에 흐르는 기적의 시간, 광활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조선의 힘과 기상이 얼마나 거세찬것인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7월 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그때 이곳에서는 새로운 전투장들이 곳곳에 전개되여 한창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40일만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몰라보게 달라진 건설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10월 찬눈을 맞으시며 올해에만도 세번째로 되는 현지지도의 자욱을 삼지연군건설장에 새기신 우리 원수님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지난 8월에 와보았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였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한 자태를 드러냈다고 하시며 불굴의 정신력과 드센 공격전으로 날마다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의 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주시였다.

참으로 놀라운 속도, 눈부신 기적이다.

력명거리가 일떠설 때 세계는 그것을 두고 력명신화라고 하며 경이롭 금치 못하였다. 오늘 여기 백두산기슭에서 세상이 또 한번 놀라고 부러워할 신화가 창조되고있다. 살림집건설만도 하나의 큰 거리와 맞먹는 방대한 량이고 철도와 도로, 공공건물건설까지 합치면 참으로 아름찬 창조대전이지만 눈부신 힘과 속도로 완공의 날을 향해 질풍치는 삼지연전구,

력명신화는 고난의 장막을 부시며 동려오는 승리의 력명을 확신하게 한 사변이였다. 삼지연천지개벽은 찬란히 밝아오는 내 조국의 눈부신 새 아침을 그려주는 해돋이신화이다.

참으로 가슴후더운 백두산기슭의 천지개벽이다.

세상에는 화려한 도시들과 번화가들이 있다. 그러나 백두산기슭에 펼쳐지는 천지개벽은 이 세상 그 어느 하늘아래서도 찾아볼수 없는 뜻깊은 절경으로 천만의 가슴을 파고든다.

인민의 마음속에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행복의 고향, 여기에 삼지연천지개벽의 깊은 의미가 있다.

행복의 고향, 부를수록 눈금젖는다.

한포기의 풀, 한그루 나무에도 선렬들의 넋이 스며있고 조국해방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백두산, 위대한 장군님 탄생하신 백두산밀영 고향집이 숭엄하게 솟아있는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그처럼 뜻깊은 혁명의 성지가 이 땅의 눈부신 래일을 먹차게 그려주는 행복의 고향으로 더욱 높이 솟아 빛나는것이다.

행복의 고향,

단지 행복의 리상향이 펼쳐지기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행복의 억세고 깊은 뿌리가 무엇인가를 가슴치게 새겨주는 혁명의 성지, 마음의 고향이다.

황홀경을 펼치는 삼지연군건설장너머로 흰눈을 떠이고 솟은 백두산의 웅자가 우뚝이 안겨온다. 조국진군의 그날 항일의 녀투사들이 품에 안았던 진달래의 향기도 풍겨올듯싶은 혁명의 전구,

언제인가 항일전의 나날을 회고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삼지연에 대해 못가의 진달래와 물속의 진달래가 한데 어울려져 얼마나 수려한 절경을 이루었던지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초막을 짓고 살고싶은 심정이였다고, 조국을 해방하면 온 세상이 보란듯이 경치좋은 이 고장을 인민의 휴양지로 꾸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 마음속에 그려보시던 인민의 락원, 밀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항일의 투사들이 《사향가》 노래속에 심어보던 아름다운 조국강산이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는가.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넘원 꿈틀 강산에》라는 추억깊은 노래구절이 오늘 백두산아래 첫동네에 가장 눈부신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행복의 고향, 우리 장군님의 고향군에 울리는 그 부름은 참으로 불덩이처럼 우리 가슴을 파고든다.

오늘도 천지개벽을 이룩하는 삼지연땅에 옛 모습그대로 솟아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천고의 밀림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을 떠나 삶과 미래를 생각할수 없고 그 행복에 대해 말할수 없는 이 나라 인민이다. 장군님의 눈물겨운 고생과 바꾼 행복, 그이의 눈보라한생이 안아온 행복의 새봄이 무르익는 땅에서 자나깨나 장군님을 못 잊는 인민의 열화같은 마음을 다 합쳐 우리 장군님의 고향군에 인민의 행복의 리상향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찬눈이 내리는 건설장에 서시여 몰라보게 달라진 삼지연군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 생각으로 마음 불태우시였습니다.》

지난 10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였던 216사단 현장지휘부의 책임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이다.

우리의 눈앞에 어려온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속에서 눈부신 전변을 이룩하는 삼지연군을 보고 또 보시며 인민의 행복을 그리도 사무치게 념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로 마음달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두해전 11월 삼지연군을 찾으신 그날에도 펑펑 내리는 흰눈속에 서시여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소. …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연도 많은 혁명의 성지에 서니 그 대답이 가슴을 친다. 그것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이다. 인민의 행복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들의 모습그대로 오늘도 인민위한 끝없는 헌신의 길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품에서 찬란히 밝아오는 이 땅의 래일이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행복만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들처럼 오늘도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고 행복의 뿌리가 되신 경애하는 원수님.

폭염과 열풍, 찬눈비, 흙먼지날리는 험한 길…

천지개벽을 이룩하는 삼지연땅에 새겨진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 인민은 잊지 않을것이다.

삼복철강행군에 이어 또다시 찬바람부는 이 계절 삼지연군건설장이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지 멀리 평년이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건설장에로 끝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발자욱소리 천만의 가슴을 파고든다.

그래서 이 땅우에 울리는 인민의 행복이라는 말은 불덩이처럼 뜨겁다.

그것은 우리 수령님들의 고생과 바꾼 인민의 락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시며 우리 원수님 이어가시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우에 주렁지는 만복의 열매이다. 그것을 눈앞의 산 화폭으로 새겨주는 삼지연의 천지개벽은 바로 그래서 행복의 고향이라는 뜨거운 부름으로 천만의 가슴을 적시는것이며 시대를 격동시키는것이다.

2

우리는 지금 혁개봉전망대에 서있다. 시간이 다르게 변모되는 삼지연군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불도가니마냥 들끓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느라니 례년에 없는 폭염과 열풍, 찬눈속에서 어려차례나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뜨겁게 하신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당의 부름따라 온 나라 각지에서 수많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삼지연군으로 달려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자기 집 뜨락처럼 정성다해 꾸리고있다고, 백두산천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하다고 하여도 그들이 바치는 리없이 순결한 충정의 땀방울에는 비길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함께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위대한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전체 216사단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드린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 원수님께서 훌륭한 인민의 모습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충직한 아들딸들로 내세워주신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대원들,

거창하게 펼쳐지는 삼지연지구의 천지개벽도 소중하지만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이기며 백두의 창조본때로 기적과 위훈을 펼쳐가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백승의 비결이 무엇이고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힘이 무엇인가를 긍지높이 세겨주는 시대의 본보기, 거울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라!

이것이 삼지연의 눈부신 천지개벽에 어려오는 216사단 전투원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여전하다. 전대미문의 제재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피를 물고 날뛴다. 허나 시련속에서 자키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과연 어떻게 자키의 힘과 기술, 자기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가를 이 땅우에 펼쳐지는 창조의 대격전들은 얼마나 장쾌하게 보여주고있는가.

모든것이 어렵고 긴장하지만 저 원산땅에는 세인을 놀래울 희한한 해양공원도시가 솟아오르고 북방의 산발들을 헤지르며 단천발전소건설장의 거창한 불길굴들이 뻗어가고 웅장한 언제들이 키를 솟군다. 폭스의 명예를 완전히 벗어던진 우리의 철생산기지들이 장쾌한 불노을을 지펴올리며 주체철폭포를 가슴후련히 쏟아내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 지하전동차, 무궤도전차들이 행복의 물수레되여 기쁨을 더해준다.

얼마나 좋은가. 자력갱생이야말로 만복의 보검이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불길치는 한 이 땅우에 흐르는 승리와 번영의 력사는 영원하다는것을 삼지연전구는 자기의 산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미 있던 군을 개건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리상과 포부에 걸맞는 새로운 군을 안아올리는 삼지연군건설은 소요되는 자재와 자금, 로력과 설비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헤아리기 어렵게 방대하다. 허나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속에서도 그처럼 거창한 창조대전이 순간의 멈춤없이 맹렬하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세멘트, 우리 강재, 우리 타일, 우리 설계, 우리 기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억세게 다져온 우리의 힘과 위용은 정녕 얼마나 가슴뿌듯한것인가.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백승의 진리가 더욱 힘있게 확증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오늘 자키의 고향인 백두산기슭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를 창조하고있다.

삼지연군건설이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본보기, 표준을 창조하는 투쟁이라면 그 주인공들인 216사단의 전투원들은 우리 시대 자력갱생본보기를 백두산기슭에 보란듯이 안아올리는 기수, 선구자들이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백두전역에 달려온 이들은 조국번영의 주로우에 긍지높은 투쟁의 자욱을 새겨온 위훈많은 대오들이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922건설려단, 618건설려단, 성, 중앙기관려단, 철길건설려단…

하지만 삼지연군건설은 이제껏 체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시련의 련속이였다. 누구나 삼지연군꾸리기처럼 조건이 불리한 건설은 없다고 말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하는 간고한 투쟁의 전구에서 우리의 미래은 삼지연군건설자들은 창조도 보통의 창조가 아니라 최고의 창조를 이룩하고 불가능도 단순한 가능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으로 만들고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의것을 창조하자!

이것이 216사단 전투원들이 내세우고있는 자력갱생의 기준이고 본보기이다. 단지 없는것을 만들어냈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은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하나를 창조해도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고 하나를 내놓아도 청단수준의 완벽한것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장자들이다.

오랜 세월 화산작용의 흔적으로만 존재하던 부사를 가지고 만든 마감건재들만 보아도 그렇다.

그런가 하면 도로건설도 부사를 리용하여 하고있는데 그렇게 건설한 도로가 참으로 훌륭하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들은 하나의 건물을 일떠세우고 한채의 집을 지어도 최상의 수준, 최고의 목표를 지향하고있다. 어디서나 절실히 필요한 기능공들은 현장에 《야전학교》를 차려놓고 자체로 양성하면서 건설의 높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과연 항일의 연길폭탄정신이 창조된 혁명의 성지에서 백두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이기는 전투원들이 다르다.

백절불굴의 기상으로 막아서는 고난을 완강하게 이기며 완공의 날을 향해 전진하는 삼지연전역에 서면 생각이 깊어진다. 그것은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창조된 간고분투, 전인불발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시련의 억풍을 맞받아헤치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백승의 보검으로 되고있다는 가슴벅찬 확신이다.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혁명의 길에서 항일선렬들이 창조한 백절불굴,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이 땅에 승리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 귀중한 재부, 보검이다.

오늘 삼지연전구는 백두산칼바람이 불어치는 우리 시대의 빨찌산전구이고 216사단의 전투원들은 간고한 시련의 억풍속에서 백두산악과 같은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만난을 이기며 기적을 안아오는 신념의 강자,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다.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전인불발의 투쟁본때! 드넓은 삼지연전역이 그것으로 불길친다.

아마도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 삼지연군건설처럼 어렵고 간고한 건설은 없을것이다. 모든것이 시련이고 난관이다. 한해에 비가 천번 내린다는 고장, 한해치고 건설을 할수 있는 기간이 불과 몇달밖에 안되고 수많은 물동량을 실어들여야 하는 건설현장도 나라의 한끝이다.

그중에서도 기초공사때의 간고처절한 나날을 건설자들은 누구나 잊지 못한다. 이지대는 기초굴착공사에 대단히 불리하다. 봄날에도 땅속 깊은 곳까지 얼어있는 대지를 한치 또 한치 힘들게 까내면 그다음은 붕락이였다. 허리까지 치는 감탕에 뛰여들어 악전고투속에 박은 기초가 몇시간만에 또다시 잠겨버리기를 그 몇번, 그렇게 처리한 토량이 어느 한 현장에서는 무려 수십만㎥에 달하였다니 그 간고처절함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리랴. 하지만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몰랐다. 북방의 찬바람을 밀어내며 《혁명군의 노래》가 백두의 밀림을 뒤흔들었고 《적기가》의 선률이 드넓은 백두전역을 진감하였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항일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억천만번 죽더라도 당이 준 명령을 결사관철하자!》는 신념의 뢰성으로 메아리쳤다.

나의 입당보증인은 백두산이다!

혁명의 성산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대상공사를 맡아 당에서 정해준 기한내에 기어이 완수한 618건설려단 인민보안성련대 전투원들의 이 남다른 긍지,

그냥 시있기도 힘든 깎아지른듯 한 절벽에서, 그것도 온몸을 통째로 날려버릴것만 같은 칼바람속에서 진행해야 하는 공사는 말그대로 매 전투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하는 결사전이였다. 몸에 바줄을 매고 아찔한 절벽에 올라 세찬 비바람속에서 전투를 벌린 이들, 온수수단이 불가 힘든 산중턱까지 세멘트와 골재를 모두 등짐으로 져나르고 끼니때면 숟가락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낮에 밤을 이어 용접전투를 벌린 불사조들, 과연 무엇이 평범한 돌격대원들을 그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신념과 의지를 지닌 기적의 인간, 정신력의 강자들로 되게 한것인가.

《너무 힘들어 그 자리에 쓰러지고싶었다. 그때 대대장동지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렸다. 〈동무들, 백두산이 지켜보고있소. 천지의 맑은 물에 청춘의 자서전을 쓰겠다고 한 동무들이 아니요.〉 순간 무서운 힘이 솟구쳤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그 생각만 안으면 가슴이 커지고 힘이 솟는다.》

인민보안성련대의 한 대원이 쓴 일기의 구절이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216사단 전투원이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이 자부이다.

백두산의 보증을 받은 삶, 참으로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이겨내며 이 땅에 조국해방을 안아온 항일선렬들처럼 시련앞에 굴할줄 모르고 난관앞에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백절불굴, 전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신념의 강자들만이 지닐수 있는 긍지이고 자부인것이다.

백두산기슭에 인민의 리상향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어찌 단순한 산간의 리상도시라고만 하겠는가.

삼지연군건설장을 찾으실 때마다 우리 원수님께서 간곡히 하시는 당부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전투에 참가한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공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굳게 손잡고 어깨겯고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며 고락을 같이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온 나라에 덕과 정이 차넘치고 나라가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에 변화가들은 많아도 사랑과 정의 만석우에 솟아오르는 미덕의 화원, 덕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요람은 없다. 우리 당이 조국땅 방방곡곡에 펼치는 거창한 창조대전들은 위훈의 전구, 활무대인 동시에 우리 혁명대오의 동지적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인간성장의 교정이기도 하다.

가장 간고한 시련속에서 력사가 알지 못하는 뜨겁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의 륜리를 창조한 조선혁명, 그 전통이 마련된 백두산기슭에 오늘 또다시 사랑과 정의 힘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감명깊은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혁명적신념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가장 고상한 혁명적륜리를 창조한 항일빨찌산들의 동지애를 그대로 안고 혁명적동지애의 위력으로 만난을 이겨내는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

《대원들을 위한 수첩》을 가슴에 품고 《나는 오늘 대원들을 위하여 무슨 좋은 일을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들을 비추어보는 지휘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제나 대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불보다 뜨거운 전우애로 대오를 이끌던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의 미더운 모습을 본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또다시 밤잠마저 잊고 좋은 일을 찾아하며 헌신의 삶을 불태우는 녀성돌격대원들의 모습은 오늘도 계속되는 유격대녀대원들의 이야기런듯, 뜻밖의 일로 부상당한 처녀돌격대원과 일생을 함께 할것을 결심한 지휘관의 소행이며 사경에 처한 돌격대원을 위해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던 그날의 광경…

참으로 전하고전해도 끝이 없을 이야기, 이 세상 제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의 삶과 투쟁의 서사시이다.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위대한 정신이 창조된 백두산은 어제도 오늘도 이 나라 아들딸들을 참된 혁명가, 강철의 투사,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로 키워주는 혁명의 고향이다.

* *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급진전하고있다.

이룩한 승리도 위대하지만 안아와야 할 승리 또한 가슴벅찬 우리 혁명의 진군길이다.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나서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단결된 힘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인민의 소유물들과 새로운 행복이 멈춤없이 일떠서고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이 기세, 이 정신으로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 우리 식 발전속도를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는 백두산기슭에 타오르는 삼지연군 전설자들의 무비의 투쟁정신과 백절불굴의 창조본때가 더없이 귀중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자기 집 뜨락처럼 생각하고 훌륭하게 꾸리는 백옥같은 충정심, 변주먹으로라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강용한 기상과 투지, 하나를 창조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비상한 창조정신…

백두전역에 타오르는 이 투쟁정신과 창조본때가 온 나라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에 타번질 때 이 땅은 그 어디나 백두의 혁명정신 나래치는 오늘의 빨찌산전구, 창조와 위훈의 활무대가 될것이다.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고 조국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꽃피우는데서 억만금의 재부보다 귀중한것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두의 기상으로 만난을 짓부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기자.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방 성 화

사랑으로 이어진 거룩한 자욱

뜻깊은 기념사진

인민을 위한 공장으로

두해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궁전으로 더 잘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태를 이어 길이 전해갈 은정깊은 배려도 돌려주시고 궁전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둘러서는 소조실들마다에서 《아버지원수님! 뵙고싶었습니다.》라고 목메여 부르면서 저저마다 품에 안겨드는 소조원들에게 자신께서도 너희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정겹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꿈만 같은 행복에 겨워 울고 웃는 학생소년들에게 울면서 찍으면 사진이 잘되지 않아, 우리 웃으며 찍자, 사진을 인차 보내주마라고 따뜻이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세상천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진을 찍지 못한 학생소년들과 교직원들이 있겠는데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궁전의 일군들, 교직원들, 소조원들이 한자리에 모일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군, 세상에 들도 없는 산간도시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지난해 12월에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온 한해 인민사랑의 자욱을 수놓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도 들리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이 생산정상화의 불길속에 감자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실지 인민들에게 력을 주는 공장으로 자키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감자가공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인민들이 좋아하는 가공품의 가지수를 부단히 늘여나갈데 대한 문제, 생산공정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 위생문화적환경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한알의 감자도 허실없이 제때에 가공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점검 및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감자가공품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설레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원대한 구상, 고귀한 지침

력사의 땅 삼지연군이 어제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날에날마다 그 모습이 일신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기슭에 펼쳐지는 이 천지개벽의 현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심장마다에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자고 결심한것만큼 모든 대상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혁명의 발원지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으로 꾸리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화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잊을수 없다. 우리 원수님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던가.

두해전 6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꾸리시려는 자신의 웅대한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앞선 단위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문제, 삼지연군꾸리기를 가까운 몇해어간에 끝내도록 할데 대한 문제…

그이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들이였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을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이날만이 아니였다.

그해 11월말 삼지연군인의 여러 무분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의 안목을 환히 띄워주시였다.

축산업에서도 삼지연군이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문제, 군의 특산인 돌묵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삼지연군에서 경제문제를 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삼지연군이 모든 면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고 제일 앞장에 서도록 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정녕 백두산아래 첫동네에 이룩될 천지개벽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색과 심혈에는 끝이 없었다.

머나먼 삼지연군을 찾으실 때마다 건설자들의 빛나는 위훈을 헤아려보시며 크나큰 힘을 안겨주시고 건설현장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렇듯 웅대한 구상과 고귀한 가르치심,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삼지연군은 변혁의 일력을 자랑차게 새겨가고있다.

백두의 천지물처럼 맑고 깨끗한 고결한 충정을 안고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있기에 삼지연군이 온 세계가 부러워할 희한한 산간도시, 천지개벽의 본보기로 눈부시게 빛을 뿌릴 그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림 정 호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을 우리 인민의 황홀한 리상향으로 훌륭히 꾸리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크나큰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하리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거세찬 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다.

인파속으로 희한한 살림집들과 공공 및 산업건물건설장들, 지대정리현장을 비롯한 그 어디에 가보아도 좋다.

시공단위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열의에 떠받들려 북방의 어려운 자연지리적조건속에서도 살림집들이 련이어 완성되고있으며 수많은 시설물들의 내부가 새롭게 단장되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삼지연군건설장에 또다시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216사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충정의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평범한 날의 이른아침 조국땅 북변에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실줄 어찌 알았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쏟아지는 찬눈에도 아랑곳없이 새로 완성된 살림집, 공공 및 산업건물건설장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공사를 성과적으로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삼지연군 읍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고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어찌 그뿐이랴.

완공된 살림집에 들리시여서는 살림방과 무역, 세면장을 비롯한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며 건설감독부문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지도를 짜고들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소복이 내려쌓인 흰눈을 밟으시며 삼지연군건설 2단계인 다음해공사계획과 총건설계획도 밝혀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다심하신 손길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해 공사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단위들에 공사대상들을 분담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재와 자금, 로력보장, 수송보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다음해에도 올해와 같은 기세로 냄다 내밀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올해건설목표로 정해진 수백동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들의 공사량은 로력보장문제로 보나 자재수송문제에 있어서나 참으로 아름찬 건설과제였다.

삼지연군건설자들은 무더운 삼복철에도 불과 40일사이에 두차례나 공사현장에 찾아오시여 신심과 배짱을 안겨주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성, 중앙기관려단과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아래 여러 단위들, 618건설려단 황해북도련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공단위 전투원들이 1단계목표로 정해진 살림집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고 가까운 시일안에 삼지연군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당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가는 결사관철투사들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백두의 천고밀림을 울바자로 두르고 아름다운 지상락원으로 전변되는 삼지연군에서는 머지않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황해북도련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미더운 전투원들속에는 삼지연군 읍지구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는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황해북도련대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련대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을 만나보면 제일먼저 화제에 올리는 것이 여러동의 살림집건설을 진행하면서 800여m에 달하는 오수망공사를 새로 맡았던 때의 일이다.

당시 살림집건설과 동시에 새 공사를 해제끼자고보니 시공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직경이 큰 오수관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만큼 공사조건은 어려웠다. 그렇다고 이곳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물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조건이 어렵다고 주춤한다면 우리 어찌 백두청춘들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련대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심장은 이처럼 뜨거웠다.

새 전투를 앞두고 김철룡련대장과 리기호정치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새로 제기된 오수망공사과제를 전투력있는 2대대에 맡기기로 하고 부족한 흙관을 대대별로 만들데 대한 작전을 폈다. 물론 흙관제작에 필요한 철판과 철근도 긴장하였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모든 작업은 립체적으로 진행되였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투쟁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 자각을 백배한 돌격대원들이 내부에비를 막구하고 이미 수집해놓았던 유휴자재로 수십㎥의 천형철판휘틀제작과 모래와 자갈확보전투에 뛰여들었던것이다.

그 나날 대대별로 흙관제작전투를 경쟁적으로 벌린 혁신자들은 얼마였으며 부족한 철근을 자체로 수집하여 공사를 다그친 주인공들은 또 얼마였던가.

이런 미더운 청년전위들에 의해 련대는 20여일만에 기초굴착과 흙관생산, 조립을 비롯한 모든 작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련대의 돌격대원들이 아로새겨가는 백옥같은 충정과 위훈의 자욱자욱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매일 아침 삼지연읍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는 소대장 손봄순, 대원들인 김극향, 김성희동무를 비롯한 직속 1중대 5소대 대원들이며 미장작업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가는 5대대와 6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 그리고 철판기와조립과정에 소형절단기와 나사 등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확보해가며 맡겨진 전투과제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2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

당에 대한 깨끗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지니고 날마다 위훈창조의 기상을 떨쳐가는 이런 혁신자들에 의해 련대의 공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흘러온 나날에 새겨진 이들의 위훈도 크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값높이 새겨온 자욱들을 더듬어보며 과감한 공격전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는 결사관철투사들의 미더운 모습을 본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또다시 빛나게 아로새길 애국의 흔적을 심장으로 안아본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비낀 마음

읍 15지구 17호동 살림집을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 읍지구에 산간지대의 고유한 특성과 민족성이 결합구현된 다양한 형태의 살림집들을 특색있게 건설하였다.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 형제산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일떠세운 15지구 17호동 살림집도 그중의 하나이다.

붉은색철판지붕을 건뜻 떠이고 주변경치와 잘 어울리게 독특한 형식을 이룬 4층짜리 살림집은 건축물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했다.

거울을 깔아놓은듯이 알른알른한 계단을 올라 3층의 한 살림집에 들어선 우리는 공동살림방과 자식방, 창고, 부엌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살림집은 당장이라도 집주인들이 들어서면 살림을 펼수 있게 알뜰하게 꾸려져있었다.

돌격대원들이 살림집들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계속 의논하는 모습도 보이였다.

《집주인들에게서 합격이라는 평가를 받을수 있겠는가를 거듭 따져보는중입니다.》

맡은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돌격대원들의 헌신의 세계를 새겨보게 하는 대대정치지도원 리성철동무의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였다.

때없이 쏟아지는 비속에서 수천㎡의 토량을 파내며 기초공사를 진행하면 나날들, 골재수송으로 들끓던 위훈의 낮과 밤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벽체를 쌓던 그 순간순간들에 대대장 송광혁동무와 대원들의 심장은 무엇으로 세차게 고동쳤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의리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려갈 백옥같은 충정의 일념이였다.

하나의 벽체를 미장해도 열번, 스무번을 살피며 고르롭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벽의 모퉁이가 미흡하지는 않은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이들의 입솜씨야말로 자기 부모형제가 살게 될 고향집을 꾸리는 주인들의 입솜씨와 다름없었다.

소층살림집은 비록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고결한 량심과 무한한 헌신으로 받들어가는 이들의 뜨거운 진정을 전하는 위훈의 기념비처럼 우리의 눈가에 비껴들었다.

현지보도 배움의 종소리 울려퍼질 래일을 향하여

성, 중앙기관려단 1련대건설장에서

여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읍지구의 초급중학교건설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의 근로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대상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열렬한 애국의 인생관을 지니고 오늘의 벅찬 대건설전투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야 합니다.》

지금 전투현장은 배움의 종소리 랑랑히 울려퍼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내부마감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는 성, 중앙기관려단 1련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진다.

2층으로 된 큰 규모의 기본교사앞에 펼쳐진 운동장들레를 따라 곳곳에 세워진 붉은기들과 직관선전판들, 운동장기초충형성을 위해 부사를 퍼느라 부지런히 움을 쓰는 불도젤과 부사를 가득 싣고 연방 들이닥치는 중량화물자동차들…

앞으로는 삼지연군 읍지구가 한눈에 안겨오고 옆으로는 배개봉이 솟아있는 명당자리에 일떠서는 교사를 바라보니 조국의 미래를 위해 펼쳐지는 하늘같은 당의 은정이 어려와 우리 가슴은 뭉클해진다.

한껏 맡아오른 마음을 안고 우리는 2대대가 맡아 시공하는 기본교사안에 들어섰다.

기초기능실습실옆에 있는 위생실안에서 최현일동무를 비롯한 3소대원들이 나무망치를 두드리며 타일을 입매지게 붙여나간다. 그에 뒤질세라 《분과실》이라고 써붙인 린접한 칸에서는 최영수동무를 비롯한 2소대원들이 매올재바르기를 한창 진행하고있다.

우유공급실의 문들주변에서 금수관을 설치하는 김금철동무의 입솜씨가 불만 하다. 벽면에서 돌출된 수지판에 익숙한 솜씨로 수도꼭지를 척 맞추어놓으니 금방이라도 수도물이 쫄쫄 쏟아져나올듯 하다.

창문으로 운동장을 바라보니 밖에서도 전투가 한창이다. 장금희, 허금주, 리진향동무들은 건물내부의 바닥공사에 리용할 인조석분쇄작업으로 드바쁘다. 우리와 동행한 경공업성중대 정치지도원 장성철동무는 말한다.

《모두가 높이 세운 일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저렇게 기세를 올리고있습니다.》

그는 량철석, 최영수동무를 비롯한 기능공들이 남먼저 지붕공사를 끝낸 결과 내부공사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있다고 웃으며 이야기한다.

날에날마다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려본다.

애국의 땀과 열정을 바쳐가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가는 돌격대원들에 의해 머지않아 펼쳐질 삼지연군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래일을.

생눈길을 헤치는 심정으로

도로련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면서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도로공사현장과 숙소주변에 직관판과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을 세우고 혁신창조의 기상높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지난 5월 어느날 로반형성에 필요한 자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다음날 현장주변에서는 도로공사와 인연이 없어보이는 방대한 굴착전투가 벌어졌다. 천길땅속에라도 들어가 자갈층을 기어이 찾으려는 불같은 열의속에 과감한 공격전이 개시되였다. 수심록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전투장의 분분초초는 그대로 전선시간처럼 흘렀다.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는 속에 이틀은 끝끝내 현장주변의 수m깊이에서 수백㎥에 달하는 자갈을 제위할수 있는 원천을 찾아내어 공사수행을 위한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억수로 쏟아진 비말도 이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이런 의지로 그들은 해당한 도로로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험한 길을 한치한치 헤쳐나갔고 현지답사와 측량작업만도 10여차례나 하였다.

돌격대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올해전투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

그 어떤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모두의 가슴속에 이런 의지가 세차게 급이쳤다.

시시각각 시험하려들었다. 그때마다 자강도와 황해남도, 황해북도대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제인 도로의 로반형성을 위해 갈랑속에서 치렬한 맞물이전과 마대전을 벌리였다. 불리한 기후조건을 이겨내며 전투과제수행을 위한 격전을 벌린 혁신자들은 그뿐이 아니였다.

진펄과 다름없는 지대에서 각종 중기계와 물전기재들의 가동을 원만히 보장하여 올해에 계획한 도로확장공사를 기한전에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큰 규모의 암거공사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매일같이 왕복 수십리길을 달리며 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수백㎥의 물동을 운반한 중기계중대의 미더운 전투원들…

련대에서는 다른 단위가 하게 되여있던 도로공사도 스스로 맡아 단 3일만에 와닥닥 해제끼였다. 올해전투기간에 무려 8만 8천여㎥에 달하는 토량처리와 부사깔기작업을 진행하고 3천여㎥에 달하는 자갈을 자체로 확보하여 공사에 리용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서 결사관철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618건설려단 인민보안성련대 전투원들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용솟음쳐오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병사들의 위훈을 소리쳐 자랑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해 618건설려단 인민보안성련대 전투원들이 90여일의 격전길에 뿌린 후더운 피와 땀은 그 얼마였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를 혁명의 성지답게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눈가루, 돌가루, 얼음가루를 사정없이 휘뿌리며 세차게 태질하는 칼바람을 맞받아 백두산으로 오르는 대오가 있었다. 백두산천지주변 건설대상들을 맡고 선발대로 파견된 인민보안성련대의 지휘관들과 함경남도인민보안국대대의 군인건설자들이였다. 그들은 키를 넘게 쌓인 눈을 헤치며 막돌을 날라다 차길을 만들고 지처내리는 자동차들을 어깨로 밀어올리며 한치한치 기동로를 열어나갔다. 눈보라강풍속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리는 속에 어느덧 모두가 눈사람, 얼음사람이 되여버렸다. 그렇게 14시간의 격전끝에 대오는 드디여 백두산정점에 올랐다. 백설을 흩날리는 백두산의 모습은 얼마나 웅건장중했던가.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묻는 김호길정치부장에게 군인건설자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백두산에 오르니 심장이 커진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심장속에서는 결사관철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었다. 그들은 단 한주일사이에 가설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새로운 기동로를 형성하여놓았으며 기본력량이 기동하여 즉시 공사에 진입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놓았다.

인민보안성련대의 군인건설자들과 운수수단, 기계설비들이 백두산으로 기동하고 기계실과 가설천막들이 전개되였으며 전격전, 립체전이 벌어졌다.

해발고가 수천m를 헤아리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나간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기압관계로 군인건설자들의 육체적인 부담은 몇배로 컸다. 때없이 내리는 눈과 비, 세찬 바람으로 하여 공사는 말그대로 엄혹한 자연과의 힘겨운 전투였다. 하지만 군인건설자들은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억척같이 돌파해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이 함마와 정대로 암반과 영구얼음층을 까내며 기초공사를 진행할 때 련대의 자동차운전사들은 수만의 강재와 세멘트, 모래와 타일용물을 운반하기 위한 긴장한 수송전투를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운전사들은 물동량을 운반하던 도중 한밤중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기들의 온넋을 바쳐 차수리를 하고 다시 운전대를 틀어잡았다. 이렇게 물동량을 운반해왔지만 더욱 힘겨운 전투는 앞에 있었다. 황토억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는 차길이 없었다. 1500m의 구간을 따라 모든 물동량을 순수 등짐으로 날라야만 했다.

지휘관, 병사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물동량을 운반하느라 어깨에 피멍이 졌지만 대오에서 물러서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이런 피더운 심장의 웨침을 한껏 떠치며 군인건설자들은 백두의 칼바람같이 드세차게 투쟁과 전진의 한초한초를 이어나갔다.

물부족으로 공사에서 애로를 겪게 되자 군인건설자들은 스스로 밤늦게까지 다음날작업에 쓸 물을 날라왔다. 그것도 모자라면 천지에 내려가 무거운 물동을 메고 천지돌계단을 하나하나 톺아오르며 필요한 물을 보장하군 하였다. 라는듯 한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휴식시간에 녀성군인들이 권하는 한모금의 물마저 주저없이 흔쾌물에 쏟아붓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은 진정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고 웨치며 결연히 일떠서던 항일의 투사들의 모습그대로였다.

운반과정에 모서리가 조금 깨진 돌가공품이 말견되였을 때였다. 광산에 가서 새로운 돌가공품을 마련해올것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수정하여 리용할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련대지휘관들의 생각은 어떻게 합쳐졌던가.

수백리가 아니라 수천리길이라도 다시 달려가 새로 제작해와야 한다.

이런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군인건설자들은 백두산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자갈과 막돌을 다른 지역에서 채취하여 등짐으로 날라왔다.

장군봉교양마당 돌조장공사를 맡은 함경남도인민보안국대대의 전투원들이 기본조장공사를 3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평양시인민보안국대대의 전투원들은 때없이 몰아치는 돌풍과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치렬한 전투를 벌려 공사를 공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인민보안국대대의 전투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애썼다. 함경북도, 황해남도, 량강도인민보안국대대의 전투원들은 고향집뜨락을 꾸리는 심정으로 아낌없는 진정을 기울이였다.

남포시인민보안국중대의 전투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도입하여 기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했다.

90여일의 치렬한 격전끝에 맡겨진 공사과제를 훌륭히 수행한 인민보안성련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저 멀리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충정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였다.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자랑스러운 그 대오속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높이 내달리다가 최후를 마친 평안남도인민보안국대대 정치일군이였던 엄진성동무도, 풋밭의 위험속에서 한몸을 내대여 혁명동지를 구원한 자강도인민보안국대대 대원이였던 박성혁동무도 함께 있었다.

인민보안성련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백두천봉에 빛나는 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를 아로새기였으며 백두산을 닮은 진짜배기충신, 창조의 거인들로 더욱 억세게 성장하였다.

단상 첫 동네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가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 펼쳐지고있다. 이것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면천지를 이룬 삼지연군 읍지구를 발목이 시도록 돌아보는 우리의 머리속에 불현듯 첫 동네라는 말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단순히 주민지구를 뜻하는 말로만 여겨지던 첫 동네란 부름이 어찌하여 우리를 세찬 흥분과 격정에로 이끌어가는것인가.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북방의 이 건설전투는 삼지연군 하나만 잘 꾸리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들을 모두 분명한 군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목표를 세우는데서 경험을 창조하고 본보기를 만들고자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도시형성이 명백한 구획을 이룬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장에서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와 공공건물, 건물들사이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이 보장되게 특색있게 일떠선 봉사시설과 소층, 다층살림집들의 정경을 바라보는 맛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 여기 하늘아래 첫 동네의 천지개벽을 통하여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볼수 있다는데 진정한 기쁨과 환희가 있는것이다. 그래서 첫 동네란 그 부름이 우리의 가슴속에 그리도 깊은 여운을 안겨주는것이리라.

삼지연군의 전변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문명국의 모습이 어떤것인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뜻깊은 전경화와도 같다. 진정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장은 우리 조국의 눈부신 래일이 환희롭게 빛발치는 참으로 뜻깊은 곳이다.

첫 동네의 의미를 가슴벅차게 새겨보는 우리의 가슴속에 끝없는 격정의 물결이 세차게 출렁이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살림집주변정리공사를 다그치고있는 922건설려단 돌격대원들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음해 과일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하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과일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과일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사과밭밑비료주기를 끝낸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군의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임해나가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농사차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다. 오늘의 당정책관철전에서 우리 일군들은 사색과 실천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해마다 진행해오던 과일나무밑비료주기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것을 발기하고 실천한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군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는 물거름에 뇨소비료와 상원카리를 섞어 밑비료를 줄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물거름을 정보당 20t이상 낼 목표가 세워졌다.

이 목표를 놓고 일부 일군들속에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실 군에서는 올해에 모든 과수농장들에 년간 수천t의 물거름을 생산할수 있는 축산기지들을 건설해놓았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름원천을 계산해보니 그 량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러자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신심이 없어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갓 건설해놓은 축산기지들에서 당장 어떻게 그 많은 물거름을 생산할수 있겠는가, 지금껏 물거름을 쓰지 않고서도 과일농사를 해왔는데 현재 마련된 물거름만 가지고 밑비료주기를 하면 어떤가고 하였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물거름량을 줄이면 과일나무에 들어가야 할 영양원소량이 적어져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군책임일군들의 립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가지만은 명백합니다. 당정책관철에서는 사소한 에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당정책을 조건이 좋으면 관철하고 조건이 불리하면 하지 못하는 그런 단위가 얼빠져 있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군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조건타발로 우는소리를 하며 주저앉으면 제배주의자가 될수 있다. 당정책의 운명이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지 않는가.

일군들은 즉시 거름원천확보를 위해 군안의 여러곳들에 나갔다. 그 과정에 읍지구에 있는 물거름원천까지 동원하면 가능하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신심을 가진 일군들은 밑비료주기전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즉 보름동안에는 필요한 물거름과 뇨소비료, 상원카리를 마련하고 한주일동안에는 밑비료주기를 진행하자는것이였다.

책임일군들부터 물거름확보와 함께 상원카리, 뇨소비료를 실어들이기 위한 전투의 앞장에 섰다.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필요한 비료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현지에 나가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일군들의 뒤를 이어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한개 농장씩 맡아 물거름생산에 적극 떨쳐나섰다. 그들은 짬시간을 리용하여 물거름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한주일동안에 3만여t의 물거름과 천여t의 상원카리, 수백t의 뇨소비료를 확보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시작이 좋다고 하여 결실도 좋은것이 아니다.

군책임일군들이 잘한 점은 비료가 확보되였다고 만세를 부른것이 아니라 과일나무밑비료주기를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민것이다. 방대한 면적의 과수밭에 대한 밑비료주기를 한주일동안에 끝내자면 로력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일군들은 농장들은물론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가 총동원되도록 하였다.

해당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밑비료주기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들은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전투를 벌리였다.

모든 농장 과수원에서 밑비료주기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군급기관 가족들과 가두인민반원들까지 밑비료주기에 동원되였다.

온 군이 들썩하게 방송선전차에서 울려퍼지는 전투적호소에 고무된 군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일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구뎅이과기에 열정을 바치였다.

결과 한주일동안에 1 300여정보의 사과밭에 대한 밑비료주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군일군들은 어린 과일나무들에 대한 벼짚싸주기와 석회물바르기를 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짜고들었다. 다음해 과일농사에서 또다시 대풍을 안아오려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과일나무얼금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당일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굳은 각오를 안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일본새에 의하여 다음해 과일농사차비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백수십정보의 과수원을 더 조성할 목표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남새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백수십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받들고 이들은 새 과수원건설을 시작한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십만그루의 우량품종과일나무모생산과 구뎅이파기를 끝낸 기세로 지금 유기질비료묻어주기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그리하여 올해에 계획된 과수원조성에서 나서는 과업을 원만히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새로 조성되는 과수밭에는 지대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사과와 배, 복숭아나무 등을 심게 된다.

몇해전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생산을 늘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새로 과수밭을 더 조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은 과수원조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첫시작부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그들은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고 시공조직과 지도를 따라세웠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기재를 보장해주면서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에 고무된 모든 분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말은 공사를 단숨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거름원천이 부족한 속에서 음지구는 물론 다른 고장에까지 나가 거름을 실어들이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과일나무구뎅이파기를 경쟁적으로 벌리였다.

위북, 사현, 승리분장들이 맡은 작업과제를 남먼저 끝내면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속에 이들은 보름동안에 과일나무구뎅이파기를 전부 끝내고 1만 4천여t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새로 조성할 과수밭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 기간에 광명분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선 나무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25만 6천여그루의 우량한 과일나무모들을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적기에 질적으로 심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말은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 일의밑에 계속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생물농약생산에 힘을 넣어

길주과수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같이 말씀하시였다.

《과일생산단위들에서 지방의 원료원천을 탐구동원하여 부족되는 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쓰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길주과수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자체의 농약생산문제였다. 올해의 과일농사경험을 분석총화하면서 따져보니 병해충에 의한 피해로 잃게 되는 과일량이 결코 적지 않았다. 실례로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병해충으로 인해 1~2알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과일밭 한 정보에서는 수백kg, 농장적으로는 많은 량의 과일을 잃게 된다. 결국 병해충구제만 잘하여도 과일을 더 생산하는것으로 된다.

농장에서는 사과나무에 약을 쳐서 벌레에 의한 피해를 막고 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병해충구제이자 과일증수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병해충구제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는 농약문제에 힘을 넣게 되였다. 하지만 병해충구제에 필요되는 화학농약을 충분히 확보할수 없었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당에서는 여러가지 효능높은 생물농약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물론 부족한것도 많고 조건이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간다면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일군들은 이런 확고한 립장에서 생물농약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난 시기 병해충구제를 진행하면서 리용해온 버거진류액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버거를 주원료로 하고 약간의 류황을 섞어 만드는 농약은 병해충구제률이 높았다. 이것을 화학농약에 섞어 리용해본 결과 많은 량의 화학농약을 절약할수 있었고 병해충구제효과도 매우 좋았다.

화학농약을 쓰면 대체로 처음에는 병해충을 죽이지만 여러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약효의 지속시간도 점차 짧아졌다. 그것은 병해충들이 화학농약에 견디는 면역이 생기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그러나 식물성농약은 아무리 반복하여 써도 병해충을 죽이는 힘이 약해지지 않았으며 약효의 지속시간도 매우 길었다.

또한 이 버거진류액은 원료원천이 풍부한 버거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수 있어 좋았다.

일군들은 버거진류액생산기지를 작업반마다에 꾸려놓고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이신작척은 대중을 교양하고 불러일으키는데서 얼마더, 백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감화력을 가진다. 필요한 원료확보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과일나무의 병해충구제에 필요한 버거진류액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되면 막혔던 길도 열리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할수 있다는것을 농장의 현실이 증명해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과나무접질썩음병을 막기 위한 바름약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자랑찬 과일증산성과로 관철해갈 불타는 맹세안고 다음해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이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흐뭇한 과일작황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박 영 진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사리원과수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이며 전국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사리원과수농장 일군들이 과일증산을 위한 방도의 하나를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서 찾고 여기에 힘을 넣고있는것이 주목된다.

일군들이 이 문제를 중시한데는 근거가 있었다. 지난 시기 기능공들이 과일나무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지 못하여 정보당 수확고가 떨어졌던것이다.

이것을 놓고 일군들이 찾은 교훈은 당의 뜻대로 근로자들이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이 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였다.

이들은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과일증산을 담보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갔다.

우선 일군들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모든 기능공들에게 매 시기 영농공정별로 알아야 할 과학기술자료들을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학습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보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군들은 한주일에 한번씩 기능공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에 인식정형에 대한 료해도 깐깐히 하였다. 또한 그 의의가 큰 현장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학습내용을 영농공정별실천과 밀접히 결부되는것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가지자르기방법을 들수 있다. 가지자르기는 겨울철에는 적게 하고 여름철에 본격적으로 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것, 해거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지솎음을 바로하여 꽃눈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사과알이 많이 달리게 된다는것,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여 영양이 나무가지라는데로가 아니라 열매맺는데로 가게 해야 한다는것 등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지난 시기 경험과 결부하여 배우도록 하였다.

일상적인 학습을 통하여 영농방법을 환히 꿰뚫게 된 기능공들의 일본새는 달라졌고 그것은 그대로 과일증산으로 이어졌다. 농장에서는 이처럼 과일나무밑비료주기, 석회물바르기, 얼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등 다음해농사차비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김 성 진

유기질비료주기를 질적으로

송한과수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땅다루기와 거름주기, 가지자르기와 열매솎아주기, 농약뿌리기를 비롯하여 과일생산공정의 모든 일을 과일나무들의 생태학적요구와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송한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과일은 자기 품종에 고유한 단맛, 신맛, 수분, 색갈, 크기같은것을 만족시킬 때만이 품질이 좋다고 평가되며 사람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다. 품질이 좋은 과일생산은 과학기술적인 과일나무비배관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것을 명심한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요구들을 철저히 지켜 생산을 늘이고 품질도 개선해나갔다.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하여 과일의 당분과 유기산함량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들은 밑비료를 봄과 가을에 한번씩 나누어주었다. 또한 농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만든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주기도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니 과일에 당분, 유기산, 비타민 등 여러가지 영양물질들이 맞춤하게 생겨나 맛을 돋구게 되였다.

과일의 크기를 보장하기 위한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도 높았다. 여기서 기본은 꽃과 열매솎음을 잘하는것이였다. 이런 기술적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수확고가 낮아지게 되는것은 물론 과일의 크기도 작아져 품질이 나빠질수 있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수확고와 과일의 크기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게 꽃솎음을 잘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적대책을 세우고 실천해나갔다. 열매솎음도 잘하였다.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일나무의 영양상태와 날씨조건, 수정률 등 열매를 맺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리고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면서도 과일이 크게 달리도록 열매솎음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지켜나갔다.

사과나무에서의 열매솎음을 실례로 들수 있다.

사과나무는 한개 꽃눈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는데 가운데꽃이 먼저 피고 그다음 나머지가 순서대로 핀다. 그들은 모든것을 충분히 따져본데 기초하여 사과알당 차례지는 일수에 따라 열매를 솎아주군 하였다.

이렇게 과학적리치를 따져가며 열매솎음을 한 결과 알알이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지게 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일은 수분이 알맞춤해야 맛을 돋군다는것을 명심한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장마철에 물빼기대책을 철저히 세웠는가 하면 해당 시기별로 방울식관수나 고랑관수를 진행하여 과일나무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어김없이 보장하군 하였다.

지금 농장에서는 올해 과일생산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마련하는것과 함께 밑비료주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일

두메산골의 체육열풍

랑림청년광산에서

《랑림청년광산에 꼭 가보십시오. 두메산골에 자랑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강도의 한 일군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이다. 가보면 아마 놀랄것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랑림땅으로 향하였다.

흔히 두메산골에 가면 물맑고 공기좋은 자랑을 먼저 듣게 된다. 하다면 랑림청년광산의 자랑은 무엇일가 하는 호기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강계시를 떠난 우리는 황수령을 넘어 랑림군 읍을 지나 한참이나 차를 달려 랑림청년광산에 도착하게 되였다.

광산마을에 도착하니 먼저 넓다란 축구경기장이 확 안겨왔다. 그리고 그옆에 있는 아담한 학교건물과 함께 운동장주변에 설치된 많은 체육기재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마침 우리는 이 학교에 교육설비와 비품들을 안겨주고 돌아서는 광산일군들을 만나게 되였다.

학교를 자주 찾는가고 우리가 묻자 지배인 정광호동무는 웃음을 띠우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광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자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까.》

쉽게 나온 대답이였지만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하나라도 좋은것이 생기면 학교에 찾아와 안겨주는데서 긍지를 느끼는 광산일군들의 진정을 엿볼수 있었던것이다.

알고보니 번듯한 축구경기장도 이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생겨난것이였다. 산으로 둘러막혀있어 평지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고장에 버림받던 지대를 대담하게 정리하여 표준규격의 축구경기장을 꾸려준것이다.

축구경기장을 꾸려놓는 과정은 비록 힘겨웠어도 도시나 벌방아이들 부럽지 않게 자식들이 넓은 축구경기장에서 공을 실컷 차보게 하고싶었던 부모들의 소원이 풀린것은 물론 광산종업원들이 대중체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해나가니 온 광산마을이 말그대로 전례없는 체육열풍으로 들끓는 특이한 정서가 차넘치게 되였다.

축구, 롱구, 배구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경기장을 꾸려놓고 아이들은 물론 광산종업원들까지도 좋아하는 광경을 보면서 기뻐하던 광산일군들은 또 다른 문제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로라스케트장과 관련한 문제였다.

당시 광산종업원들속에서는 평양에 있는 훌륭한 로라스케트장이 광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종종 오갔다. 어느날 로라스케트를 구해달라고 조르는 자식을 나무라는 광산종업원을 보면서 지배인은 길이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군이라면 응당 광산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로라스케트장을 번듯하게 꾸려주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산골짜기에 광산마을이 자리잡고있는 조건에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을만 한 부지를 잡기가 조련치 않은것이였다.

그렇다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면 아이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 일명 습지대로 불리우는 공지가 있었다. 그는 며칠동안 고심하던 끝에 누구도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이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기로 결심하였다.

사실 이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자면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들어야 했다. 하지만 광산당조직에서는 로라스케트장건설과 관련한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밀어주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긴 광산일군들은 로라스케트장건설을 대담하게 밀고나갔다.

중기계들의 힘찬 동음이 세차게 울리는 속에 방대한 기초굴착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습지대에 어떻게 로라스케트장을 건설하겠는가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막돌을 채우고 흔석을 까는 등 로라스케트장건설에 진입한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론 자진하여 떨쳐나선 광산마을인민들의 드높은 열의로 온 광산이 들끓었다. 하여 로라스케트장은 짧은 기간에 완성되게 되였다.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를 들으며 광산종업원들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체육시설들을 일떠세움에 대한 당의 뜻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였다. 이를 계기로 광산에는 여러개의 배구장, 탁구장 등이 곳곳에 꾸려지고 대중체육열풍은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게 되였다.

광산마을에 이렇게 체육시설들이 늘어나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리며 활기에 넘쳐 생활하는 모습을 현지에 직접 와서 보니 정말 감흥이 컸다. 우리 당정책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구현되고있는 머나먼 두메산골의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지 혁 철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생일 100돐 기념행사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생일 10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고있는 리용선총재를 비롯한 국제태권도련맹 주요성원들, 여러 나라의 태권도인들, 해외동포태권도인들이 11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성면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행사참가자들은 이에 앞서 태권도성지관과 평양애육원,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전당에서 시범출연을 진행하였다.

생육학연구소에서 — 본사기자 김광림 찍음

사업을 심화시켜나간다 — 의학연구원 의학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

보배작업반장

순천구두공장 공무직장 공무작업반은 전투력있고 일 잘하는 집단.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배집단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여기에는 작업반장 김형일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슴배여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뗀 날부터 오늘까지 맡은 일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작업반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그는 작업반장으로 일한 수년간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설비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그는 늘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언제인가 창직장에서 설비설치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그는 앞채를 메고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짧은 기간에 해제낌으로써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는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 여러명을 고급기능공으로 키웠다.

작업반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도 제때에 풀어주며 맡은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주는 김형일동무를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보배작업반장이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장 정 숙

2018년 가을철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 진행

2018년 가을철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가 5일부터 11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문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장애자, 탁구애호가,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외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장애자와 로인단체건, 나이별에 따르는 애호가 남자단식과 애호가 남자단식, 혼성복식으로 나뉘여 진행된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쳐보임으로써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선수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라오스를 방문하고 귀국

지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이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 11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동지와 주조 라오스대사관 성원들이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상전의 위력한 포성으로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각 도집중경제선동대경연을 보고

심장에 불을 단 경제선동의 북소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각 도집중경제선동대들의 경연이 진행되였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각 도를 대표하는 경제선동력량을 총집중하여 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된 각 도집중경제선동대들의 경제선동은 지난 시기에 진행된 경제선동활동에 비해볼 때 전례가 없는것이다.

화력탄보장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을 무대로 하여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남포시안의 예술단,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방송원, 작가, 미술가 등 190여명이 참가하여 연 5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50여차의 현장경제선동, 40여차의 출근길선동, 6차의 무대공연, 60여차의 방송선전차활동을 비롯하여 280여차에 걸치는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의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이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연조직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강력한 선동력량으로 집중경제선동대를 조직하였다.

군중문화활동을 잘하여 소문난 담배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평천구역 평천2동너명예술선동대원들, 시안의 관록있는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이 여기에 망라되였다.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어러차례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서 특별상을 수여받은 담배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이번 경제선동을 통하여 직동의 탄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0여명의 가정부인들로 조직된 평천구역 평천2동너명예술선동대는 올해에만도 삼지연군건설장과 천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자랑을 안고 여기 탄전으로 달려왔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탄광문화회관앞에 《순천의 탄부들이 있는 한 수도의 불빛은 영원히 빛나리!》 등의 제목으로 30여㎡에 달하는 선전물을 수십명의 혁신자들의 사진과 10점의 소묘작품들을 중심으로 직관제시하여 탄전을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20여명의 도예술선전대원들로 조직된 황해남도집중경제선동대가 올린 사상전의 위력한 포성은 탄부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다.

경연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도예술선전대 작가들은 이틀동안 집중적인 창작전투를 벌려 촌극 《애국의 마음》, 영화실효선동 《당결정은 우리의 생명》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탄부들과 그 안해들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또한 경제선동대원들은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를 비롯한 수십곡의 노래들로 현장경제선동, 출근길선동을 진행하여 탄부들의 심장마다에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이번 경연에 참가한 남포시집중경제선동대는 시예술단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시예술단의 관록있는 창작가들과 배우들이 진행하는 경제선동은 직동의 로동계급에게 희망과 믿음을 안겨주었다. 한 성악배우는 앓는 몸이지만 밤 12시에 전차갱에 달려나와 탄부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어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탄부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준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집중경제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은 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을 부쩍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여 경연 첫날인 5일에 12갱 채탄6중대에서 하루 계획을 156%로 넘쳐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매일 20여개의 채탄중대들에서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나날이 경제선동의 열기가 높아감에 따라 6일과 7일에는 1갱에서, 8일과 9일에는 10갱에서 20여개의 채탄중대들이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천성청년탄광에서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집중경제선동대는 천성청년탄광에서 맹렬한 경제선동을 벌리였다.

30여명의 도예술선전대원들과 도안의 우수한 작가, 미술가, 촬영가 등으로 구성된 자강도집중경제선동대의 경제선동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진행되였다.

특히 도작가동맹위원회의 한 작가는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한데 기초하여 《우리 걷는 막장길》, 《오늘의 하루》를 비롯한 20여편의 벽시를 창작하여 갱입구에 게시하였으며 도미술창작사의 한 미술가는 매일 혁신자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모습을 생동한 소묘작품으로 형상하여 직관선동의 실효를 높이였다.

또한 처녀시절에 탄광에서 일한적 있는 도인민위원회 일군인 최금실동무는 이번 경제선동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바쁜 속에서도 직접 무대에 출연하여 탄부들을 석탄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이번 경연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협의회만도 여러차례 진행하고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이 경제선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건보장사업을 짜고들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평안북도집중경제선동대는 출근길선동과 현장경제선동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는것과 함께 대형구호와 전투속보판들, 여러건의 벽시와 소묘작품들을 게시하는 등 직관선동활동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각 도집중경제선동대경연에 참가한 선동대원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경제선동활동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였다. 한편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을 탄광에 파견하여 현실체험을 선행시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벽시들을 창작하게 하였다.

천성의 탄부들은 그들이 창작한 《억센 동발》, 《탄부의 량심》, 《땅속의 하늘》을 비롯한 벽시들을 보면서 천길땅속에서도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동발이 되고 지하의 전초병이 되여 석탄산을 높이 쌓아갈 결의들을 가다듬었다.

집중경제선동의 드세찬 열풍속에 천성청년탄광에서는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종전에는 한달이나 걸려야 한다던 600m에 달하는 삭도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막장에까지 찾아들어와 지원물자들을 안겨준 자강도와 평안북도집중경제선동대원들의 성의에 고무된 8갱과 3갱의 탄부들도 생산실적을 부쩍 올렸다.

집중로화, 련속로화, 명중로화를 들이대며 다양한 방법으로 전례없는 규모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각 도집중경제선동대경연은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고조시켰을뿐만아니라 화선식경제선동의 생활력, 사상전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 이채로운 경연이 남긴 여운 ◇

실화이야기 《원수님과 탄부》

이번 경연에서는 각 도의 작가들의 활동이 크게 주목되였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리였지만 평안남도예술선전대의 한 작가는 경연이 시작되기 며칠전 천성청년탄광의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연혁소개실도 들어보는 과정에 어느 한 갱에서 일하는 조성근동무의 아들이 군사복무시절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감동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몇해전 6월 오성산초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조성근동무의 아들을 몸소 만나시여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물어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곁에 세워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그 사진을 고향에 보내주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작가는 창작적열정의 불을 거침없이 달리였다.

이렇게 창작된 실화이야기 《원수님과 탄부》는 무대공연의 절정을 이루며 탄부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조성근동무는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평안남도집중경제선동대원들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은 병사의 부모로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석탄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심장의 맹세를 절절히 토로하였다.

깊은 인상을 준 요술공연

이번 경제선동의 무대에는 다양한 주제의 요술작품들도 올랐다.

그중에서도 탄부들의 경탄을 자아낸것은 남포시예술단 요술배우인 유명수동무의 요술묶음이였다.

신비한 요술의 세계를 막장에로의 아침출근길에서, 자기들의 문화회관에서 보게 되는 탄부들의 기쁨은 유별했다. 알제주, 주패제주 등의 작품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해볼수 있는 요술인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탄부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은 유명수동무는 전국도대항요술경연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전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탄부들에게 보여줄 요술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전투를 벌리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다고 한다.

장소와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나 탄부들이 일하고있는 현장에서 요술들을 펼쳐보이기 위해 그가 기울인 정력은 얼마인지 모른다.

하루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공연을 진행하면서 탄부들을 축하도 해주고 지원물자들도 안겨주는 그의 모습에서 탄부들은 큰 힘을 얻었다.

기발한 착상과 능숙한 교감으로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는 특색있는 요술작품을 탄전에서 보게 된 기쁨도 컸지만 탄부들을 위하는 진정이 뜨겁게 어려있어 직동의 탄부들은 요술공연을 더욱 잊지 못해하였다.

벽시들은 짧았어도

이번에 여러 도의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수많은 벽시들을 창작하여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갱입구에는 탄부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주옥같은 벽시들이 벽면이 모자라게 나붙었다. 《조국의 주추》, 《행복의 량식》 등 벽시들의 감화력은 대단하였다.

탄부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몇번이나 읽어보는 벽시가운데는 《탄부가 사랑하는 길》도 있었다.

천갈래 만갈래 길이 많아도
탄부는 막장길을 사랑한다
…
꽃향기 새소리 없어도
탄부의 행복이 흘러나는 길
우리의 막장길 깊어질수록
조국의 밝은 미래 앞당겨
지거니

벽시들은 비록 짧았지만 탄부들의 가슴속에 투쟁의 불을 다는 위훈의 불씨가 되였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참다운 애국의 삶을 빛내여가는 탄부들의 긍지와 영예를 한가슴에 안아보게 하는 벽시들은 한구절한구절이 그대로 격문마냥 탄부들의 심장을 울리였으며 더 높은 석탄산을 쌓아올리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당부가 되여 탄전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였다.

▌단 상▐ 꽃 다 발

지난 9일 2.8직동청년탄광 문화회관에서는 우수한 도집중경제선동대들의 공연이 진행되였는데 관중들의 아낌없는 박수속에 무대우에 올라가 선동대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탄부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깊었다.

그것을 보니 갱입구에서 경제선동을 진행하다가 작업을 끝내고 나오는 탄부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던 선동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릇 꽃다발은 영예와 축하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기서 탄부들과 선동대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꽃다발의 의미를 다 설명할수 있겠는가.

온 하루를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빛내인 위훈속에 탄부가 받아안은 꽃다발과 그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준 긍지를 안고 동치는 붉은 심장과도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충정의 길에 언제나 한모습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약속하는 애국자들의 신념의 맹세와도 같이 느껴졌다.

꽃다발의 모양과 색깔은 서로 달랐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깊은 의미를 담은 하나의 꽃다발로 안겨왔다.

높은 실적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드는 길에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고동치는 붉은 심장과도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충정의 길에 언제나 한모습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약속하는 애국자들의 신념의 맹세와도 같이 느껴졌다.

5일 낮, 5일 밤이 전하는 이야기

명포수들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흘렀던가.

탄전에 짐을 풀어놓은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각 도의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와 영생탑, 친필비들에 대한 주변판리사업을 진행하고 총정의 결의를 다지는것으로부터 경제선동활동에 진입하였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탄부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선동대원들이 있었다. 선동대원들의 하루일과에는 공백이 없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어울려 일도 하고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없이 힘있는 현장경제선동을 진행하였으며 탄광로동자들의 집도 찾아가 조국의 귀중한 재부인 석탄 한줌한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실지 체험하는 과정에 선동대원들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하기에 이들의 경제선동을 두고 탄광의 로동계급은 어찌면 우리 탄부들의 생활을 그리도 잘 반영하였는가, 더 많은 석탄을 캐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진다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각 도의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이 하루일과표에 어김없이 쏘아박은 항목이 있다. 탄부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가정방문이였다.

혁신자들의 집을 찾아가 고무해주고 한사람이라도 더 혁신자들의 대오에 세워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탄광의 일군들은 경제선동의 위력을 다시한번 느끼였다.

탄부들의 밥그릇이 높아야 조국의 석탄산이 높아진다고 하며 자기들의 성의가 담긴 지원물자를 탄부들에게 안겨주던 선동대원들이 어찌 평안북도집중경제선동대원들뿐이던가.

정말이지 경연의 나날 일러서는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불어쳤다면 가정들에서는 웃음꽃이 만발했으며 저탄장들에는 하루가 다르게 석탄산이 높아갔다.

전투적인 화선선동과 불같은 헌신으로 흐른 나날은 비록 5일 낮, 5일 밤이였어도 각 도의 선동대원들은 하나의 혁명대학을 나온듯 긍지높은 추억을 간직하고 또다시 새로운 전투장으로 떠나갔다.

온 나라 인민의 당부를 안고

1 500여통의 편지와 회답편지

수천척지하막장에도 들어가 탄부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각 도의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은 매일 새로운 내용들을 선동에 반영하군 하였다.

지난 7일 황해남도집중경제선동대원들은 벨트갱의 녀성운전공으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그것은 해주시의 어느 한 초급중학교학생에게 보내는 회답편지였다.

이번에 황해남도인민들은 자기들의 부락이 담긴 1 500여통의 편지를 직동의 탄부들에게 보내여왔다.

출근길선동을 하고 갱입구에서 경제선동을 하면서 선동대원들은 사연깊은 편지들을 탄부들에게 안겨주었고 막장안에서는 탄부들이 그 편지들을 읽고 하루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선동대원들은 즉시 회답편지의 내용을 공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황해남도인민들과 2.8직동청년탄광 로동계급의 심장을 하나로 이어준 편지의 구절구절은 몇백마디의 말로도 대신할수 없는 귀중한 당부를 새겨주며 절절히 울려퍼졌다.

《…그 부탁을 잊지 않고 지하의 초병들인 우리 탄부들은 수천길땅속에서 내 조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여 석탄산을 높이 쌓고 욱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뿐이겠는가.

그 한통한통의 편지에 실린 황해남도인민들의 당부, 온 나라 인민의 당부를 새기며 지하의 초병들은 오늘도 더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심장의 회답편지를 쓰며 뜨거운 애국의 맹방을 바쳐가고있다.

이렇듯 진실하고 순결한 탄부들이기에 인민이 사랑하고 조국이 기억하며 값높이 내세워주는것이 아니겠는가.

영웅부부가 부른 노래

순천의 탄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출연자들속에는 로력영웅들인 리옥실, 김인복부부도 있다.

이들은 경제선동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의하여 한날한시에 로력영웅칭호를 받은 자강도집중경제선동대원들이다. 지난 40여년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불러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떠밀어준 이들부부는 이번에도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해온 노래들을 안고 먼길을 달려왔다. 이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평양의 불빛을 지켜가는 탄부들에게 보다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준비한 노래들은 탄부들의 대절찬을 받군 하였다.

번쩍이는 영웅메달을 가슴에 달고 이들이 절절하게 부른 혼성2중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은 탄부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으며 장내를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영웅부부가 노래를 부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박수와 환성이 터져오르고 의례히 재청이 뒤따랐다.

탄부들은 저저마다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나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영웅부부의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영웅동지들과 사진을 찍고싶습니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그러면서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탄부영웅이 되겠다고 결의다졌다.

신념의 메아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일터마다 혁명적열정과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창조와 혁신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이번 경연에서 평양시집중경제선동대의 방송선전차활동은 직동탄부들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

평양시당위원회 방송선전차 방송원 한혜영동무를 비롯하여 시에서 손꼽히는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인 방태숙, 김인순, 백영동무의 열정적인 선동에서 힘을 얻으며 탄부들은 출근길에 오르군 하였다.

수십년세월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를 떨치며 방송선동의 좋은 경험들을 창조하는 과정에 전국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방송선동경연을 비롯한 전국적인 경연들에서 1등을 한 판록있는 방송원들.

서정시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당부》, 촉흥시 《탄부의 모습》, 《돈보이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를 비롯한 여러편의 시들을 배합하여 탄부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이어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방송선동은 실효가 대단하였다.

경연 첫날부터 일찍 출근하는 탄부들을 위하여 한시간이나 앞당겨 방송선동활동에 진입한 이들은 탄광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내용을 학습하고 매일 계획수행정형을 알아보면서 탄부의 안해들도 만나보았다.

이렇게 방송원들은 탄부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서야 마이크를 잡았다.

불같은 애국의 열과 정을 안고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가시는 우리 원수님께 적으나마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하고싶어 여러 대고조전투장들을 찾아 방송선동의 길을 이어온 이들이다.

막장에 들어가는 탄부들을 위한 성의있는 지원사업도 하면서 김유봉영웅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오늘계획을 넘쳐 수행하자고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온 나라 인민들의 당부가 되고 승리의 신심을 용기백배하여주는 신념의 메아리가 되여 탄부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글 본사기자 강효심
리은정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혁명적당건설의 진로를 밝혀주신 불멸의 업적

오늘 세계 혁명적당들은 복잡다단한 정치풍파의 소용돌이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세계 혁명적당들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업적을 놓고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세계의 수많은 당수들과 당활동가들을 만나시여 당대렬을 강화발전시키는 문제, 당의 핵심과 간부육성문제,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 등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그들이 편향없이 당활동을 벌려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그들가운데는 꼬스따 리까의 호세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카렐리도 있다.

꼬스따 리까사회당 총비서로 사업하면서 그는 여러차례에 걸치는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그는 사회당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당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당의 로선을 한순간에 전환시킬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새 당을 창건하기로 결심하고 사회당 총비서직에서 사임하였다.

정작 새 당을 건설하자고 보니 무슨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암중모색하던 끝에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주체70(1981)년 10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아길라르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당을 창건하려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터놓으면서 마음속고충에 대하여서도 무람없이 아뢰였다. 그의 결심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주 좋은 발기라고 지지해주시면서 혁명투쟁을 하려면 당을 조직해야 하는데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을 잘 받들어나갈수 있는 핵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에는 무슨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내오는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망라시킬수 있는데 그들가운데서 핵심을 키우고 그들을 끌간으로 당을 조직하면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핵심적인 인물이 10명정도 있어도 당을 조직할수 있으며 인차 당대렬을 확대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려정연한 가르치심은 그에게 있어서 온갖 정신적고충을 대번에 씻어주는 명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꼬스따 리까에서 얼마든지 새형의 당을 창건할수 있고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였다.

그후 자기 나라로 돌아간 아길라르는 당창건준비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는 당창건에서 중요한것이 대중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각성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메리카 라티나》방송국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힘은 오직 인민대중에게 있다. 이 무궁무진한 힘을 믿지 않고 외세에 의존한다면 자유롭고 행복한 꼬스따 리까를 건설할수 없다. 자주의 기치아래 번영하는 새 사회를 창조하자. …

이러한 보도선전은 제국주의자들을 환상을 가지고 대하던 꼬스따 리까사람들의 심장을 흔들어놓았다. 이 나라의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 힘을 믿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새형의 당을 창건할수 있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밑천이였다.

아길라르는 대중을 각성시키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핵심들을 로혜장악하기 위하여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이 악랄한 속에서도 동지들을 한명한명 규합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당강령과 규약을 작성하였다. 마침내 아길라르는 주체사상을 지도원칙으로 하는 꼬스따 리까조직된 인민력량당을 창건하였다. 그는 이 당의 총비서로 되였다.

당은 창건되였지만 그 강화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리하여 아길라르는 주체73(1984)년 11월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길라르를 반갑게 만나주시였다.

아길라르는 위대한 수령님께 라틴아메리카땅에 새로운 당을 창건할수 있은것은 수령님께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는것이 자기 당원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구가 정 그렇다면 몇가지 소감이라도 이야기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당을 창건하는것도 힘들지만 조직된 당을 확대발전시키는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늦잡아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이 사업에서 좌경도 우경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이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당이 사분오렬되고만다,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울수 있는 사람, 인민을 위해 한목숨바칠줄 아는 사람들로 당대렬을 늘여야 한다, 당대렬을 튼튼히 꾸린 다음에는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래야 당이 명실공히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꼬스따 리까조직된 인민력량당은 전진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요한것은 정확한 로선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이라고 이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길라르에게 주신 한마디한마디의 가르치심은 간고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체험하시고 쌓아오신 귀중한 당건설경험으로서 자주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량식이였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혁명적당건설과 그 강화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고와 헌신은 자주시대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림 원

판문점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

남조선의 《련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지난 8일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경상남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경남평화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판문점선언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민족적약속이며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제화하라는것은 민중적요구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민중은 《국회》의원들이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에 대해 어떤 립장을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립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단체는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를 반대하거나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의 사무실앞에서 1인시위를 벌리는 등으로 항의투쟁을 벌리겠다고 밝혔다.

남조선의 대학생련합단체인 《대학생겨레하나》도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법제화하는것이 중요하기에 대학생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대학의 2 000여명의 학생들이 서명한 문건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신문
분단적폐청산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6일 분단적폐청산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올해 북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남북관계가 좋아졌지만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은 《정부》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있는데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정부》가 남북관계문제를 제대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맹》에 의존하고 머리를 숙인다면 남북관계는 더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신문은 최근 미국의 로골적인 간섭행동이 이를 말해주고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금이야말로 《보안법》을 비롯한 분단적폐를 청산할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하면서 《정부》는 시간을 늦추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15남측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대결망동 규탄

보도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얼마전 《자유한국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비렬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리유없이 방해한것도 모자라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비준을 반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온 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남북수뇌상봉과 회담, 각 분야들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있다고 회견문은 주장하였다. 회견문은 《자유한국당》이 조선반도평화와 남북관계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이라는것이 뭡중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계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한 때에 이를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망발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결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에 나서라.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발악적책동

최근 박근혜잔당들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역도를 싸고돌면서 범죄와 반역의 력사로 락인된 저들의 반인민적력사를 어떻게 하나 부활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역도를 비호하는 그 무슨 《탄핵백서》라는것을 발간할것을 주장하는 리무니없는 망발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10월말 남조선《국회》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홍문종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친박계패거리들은 박근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 《탄핵리유가 있는가. 》라고 고아대면서 탄핵 그자체가 잘못되였다는 과렴치한 수작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 《탄핵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친박계패거리들의 이런 추태는 남조선 각계의 강한 비난을 자아냈다. 남조선언론들은 《자유한국당》의 친박계가 공식회의에서 박근혜탄핵에 대해 백서를 통해 반성할것을 요구해나선것은 초보적인 상식을 뛰여넘은 행위라고 평하였다.

박근혜를 등에 업고 온갖 못된것을 다해온 반역무리들이 뻔뻔스럽게 다시금 머리를 쳐들다못해 이제는 애당초 역도를 탄핵시킨것자체가 잘못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해괴한 백서발간놀음까지 벌려놓으려 하는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거역하고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으며 범죄로 얼룩진 치욕의 력사를 되살려보려는 박근혜잔당들의 발악적인 망동은 그야말로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역도의 즐개들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에 도전하면서 매국반역의 력사를 미화분식하고 되살려려고 기를 쓰고 날뛰고있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투쟁에 의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유한국당》때들속에서조차 《초불을 피해 달아났던 바퀴벌레들》이라고 조롱받던 자들이 살판을 만난듯이 공공연히 큰소리를 치면서 박근혜역도를 구구 비호해나서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친박계패거리들은 당내에서 박근혜탄핵에 대한 립장을 밝혀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복당과를 비롯하여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을 향해 련일 불집을 일으키고있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 박근혜역도를 가장 악질적으로 비호하던 극우보수떨거지들이 《보수대통합》의 간판밑에 《자유한국당》에 무리로 기어들었다. 이것들이 반역당을 활무대로 하여 무슨짓을 하려 하는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예로부터 개미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다. 현 사태를 방임해둔다면 박근혜잔당들과 역도의 공범당인 《자유한국당》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결국에 가서 초불투쟁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말살당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뻔한 일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박근혜잔당들의 부활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력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극우보수세력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남

시대착오적인 군사적움직임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남조선군부가 지난 5일부터 해병대련합훈련을 재개하였다.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벌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고있는 미3해병대를 비롯한 약 500명의 병력과 함께 상륙장비들이 동원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의 언론들과 남조선 각계는 조선반도에서 대화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중단되였던 남조선미국해병대련합훈련이 6개월만에 재개되였다고 하면서 그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신뢰보장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때이다. 남조선미국해병대련합훈련의 재개는 이러한 요구와 현정세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9월의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군사분야리행합의서》가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되였다.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이번에 재개된 남조선미국해병대련합훈련은 조선반도 전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확약한 북남사이의 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는것이다.

6개월동안 중단되였던 해병대련합훈련을 재개하면서 《정례훈련》이라는 구실을 내대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남조선에서 일본주둔 미해병대무력까지 참가한 가운데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연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움직임이다.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현정세흐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하지 말며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게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본사기자 박 철 준

습근평주석
인민대중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9일 국가종합소방구조대에 기발을 수여하는 의식에서 인민대중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종합소방구조대 창설이 재해를 방지하고 줄이며 재해구제능력을 높이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소방구조대는 당에 충실하고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인민대중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기에 처한 인민을 구원하고 그들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방조하고 힘을 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전염병방지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

나이제리아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가 8일 전염병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2025년까지 전국적범위에서 물정화, 상하수도, 공중위생시설들을 갱신하여 물에 의한 전염병의 전파와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관련부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급 정부기관들이 계획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반테로투쟁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가 8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반테로투쟁에서 단결할것을 전국에 호소하였다.

그는 우심해지고있는 테로와 극단주의행위가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군대가 그에 대처하여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인민이 군대와 힘을 합쳐 테로와 폭력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린이보호사업을 강화할 립장 표명

남아프리카정부 대변인이 9일 자기 나라는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엄벌을 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아프리카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학대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8일 더반고등재판소는 지난 2014년에 3살 난 자기 딸을 죽인것으로 하여 기소된 녀성에게 20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가자지대에서 반이스라엘시위, 이스라엘군 탄압에 광분

이스라엘과 경계를 접하고있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9일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떨쳐나선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은 차바퀴에 불을 지르고 팔레스티나기발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강점정책과 폭압만행을 단죄하였다.

이스라엘군이 시위자들에게 최루가스와 고무탄, 실탄을 쏘아대며 탄압소동에 광분하였다. 그로 하여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가자지대보건기관은 지난 3월말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으로 220여명이 목숨을 잃고 약 2만 4 000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당국의 헌법개정을 반대하여 집회

일본 도꾜도 나가따정에 있는 국회청사앞에서 최근 당국의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과 법학자들을 비롯하여 1만 8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헌법개정을 반대한다. 》, 《절대로 안된다. 》고 웨치면서 아베정권이 평화를 지향하고있는 세계의 움직임에 역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국제적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는 제재책동

얼마전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제73차회의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철회할데 대한 결의가 절대다수 성원국들의 지지속에 채택되였다. 회의에서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반꾸바경제봉쇄는 주권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에 관한 유엔헌장과 국제법 직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꾸바인민이 선택한 자주적발전,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도전,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도구라고 규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봉쇄로 꾸바의 사회경제발전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으며 심각한 인도주의적후과가 초래되고있다. 꾸바혁명승리후 근 60년동안 지속되여온 미국의 봉쇄로 하여 꾸바가 입은 손실액은 총 9 336억 7 80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연설자들은 이번 총회결의의 순조로운 채택을 막기 위해 날조된 자료들로 일관된 수정안을 총회문건으로 내돌린 미국의 비렬한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반꾸바경제봉쇄를 즉시 철회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앞서 꾸바외무상도 유엔총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꾸바의 결의안제출을 막을 목적으로 미국이 내돌리고있는 여러건의 문건들을 배격하면서 미국이 결의안을 반대하도록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꾸바의 인권상황과 2030년까지의 유엔지속개발의정을 달성하려는 꾸바정부의 노력을 외곡하고있다고 단죄한바 있다.

한편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은 로씨야에 대한 방문중에 유엔에서 반꾸바봉쇄를 철회할데 대한 결의가 압도적다수로 채택된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는 이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확언하면서 봉쇄없이 살려는 꾸바인민들의 념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자국외교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은 회담후의 여러 계기들에 로씨야와 꾸바는 모든 국가들의 자주권과 리익을 존중하는것을 포함하여 유엔헌장에 밝혀진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을 무조건 준수하며 내정간섭과 일방적인 제재를 비롯한 강권적인 압력을 허용할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미국이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재개한데 대해서도 국제적규탄과 비난이 뒤따르고있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이란제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대한 또 한차례의 큰 타격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제재가 이란핵합의를 보존하기 위한 서명국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기 위한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로씨야외무성은 핵무기전파방지 및 군축분야와 관련한 국제법적제도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로선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정말로 이란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란의 정세 및 방위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내부정치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재압박정책을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의 제재와는 관계없이 이란과의 국제무역경제 및 금융협조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외무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란과 맺은 협정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대이란제재를 재개하는데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란핵합의의 포괄적인 행동계획은 전세계의 안전보장에서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은 공보문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이란제재강화책동은 중동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국제법들에 대한 위반행위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오늘 수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의의있는 대화와 협력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정 원 준

악화되는 피난민위기는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얼마전 유엔피난민고등판무관이 한 기자회견에서 피난민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말에 세계적인 피난민수가 약 6 850만명으로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상황은 개선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고있다고 하면서 위기감을 표시하였다.

지금 세계는 중동지역에서 지속되고있는 내전과 분쟁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래 처음 보는 최악의 피난민사태를 목격하고있다. 예멘만 놓고보아도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내전으로 수백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8월초까지 31개주에서 무장충돌을 피해 20만 9 000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방황하고있는 피난민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모진 굶주림과 병마, 죽음이 걸음마다 뒤따르고있다.

반겨맞아주는 나라도 없다.

유럽통합 성원국들속에서는 피난민접수문제로 내부분렬이 심화되고있다. 피난민들이 요행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여도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것이 례상사로 되였다.

21세기에 전대미문의 피난민위기가 발생한것은 사회적진보와 인류문명발전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비극이 아닐수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피난민위기를 산생시키는 근원을 없애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데로 견해가 합쳐지고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국제사회에 이렇듯 참혹한 인도주의위기를 몰아왔는가 하는것이다.

수많은 나라 언론들과 국제문제전문가들속에서는 그것이 중동지역을 자기 손아귀에 거머쥘 목적밑에 이 지역 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서방의 침요한 간섭정책의 필연적산물이라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벌어진 《반테로전》과 《색갈혁명》이 지역나라들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적안정을 혹심하게 파괴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피난민문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 등 중동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반테로전》의 피해자들이다. 2001년 미국주도의 나토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현대판피난민문제의 주요발화점이다고 주장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개시된 후 이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여 피난민이 급격히 늘어났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라크에서는 미군강점후 2007년한해동안에 127만명이 외국으로 이주하였다. 수리아에서도 2015년 시점에서 1 200만명이 고향을 잃고 그중 700여만명이 해외로 피난하였다.

중동판《색갈혁명》인 《아랍의 봄》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을 전후하여 뚜니지와 에짚트, 예멘 등 여러 중동나라들에서는 서방나라들의 막후조종밑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반정부세력들의 대규모적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 그로 하여 해당 나라 정부들이 련이어 무너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나라들에서는 《색갈혁명》이후 형편이 나아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엄중한 형세에 직면하게 되였다. 사회적분렬은 더욱 심화되였고 그것은 류혈적인 내전과 분쟁으로 번져갔다.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속에 테로조직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세력을 확대해나갔다.

에짚트 까히라대학 교수는 《혁명은 개변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랍세계에서의 개변은 파괴적인것이였으며 이런 개변들은 지역내 국가들에 새로운 적수인 테로와 분렬주의를 산생시켰다. 》고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랍의 봄》으로 인해 지역나라들은 만신창이 되였고 이곳은 세계최대의 피난민원천지로 전락되고말았다.

로씨야대통령은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법등지처럼 발작 뒤집혀져 헤아릴수 없이 많은 피난민이 쏟아져나오고있는 중동의 험악한 사태를 놓고 《당신들이 무슨짓을 하였는지 아는가?》라고 서방나라들을 질타한바 있다.

외세의 간섭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수 없다. 힘이 약하고 자주적대가 확고하지 못하면 외세의 압력과 회유앞에 굴복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나라도 잃고 삶의 보금자리도 잃게 된다. 인권이자 국권이다. 오늘의 피난민위기는 바로 력사의 뼈저린 이 진리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도시광산》

세계적으로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내버리는 각종 전자폐기물을 재활용물질이 대규모적으로 들어있는 《도시광산》이라고 부르고있다.

유엔의 한 보고서가 밝힌데 의하면 2016년에 전세계적으로 휴대용전화기와 뽐퓨터, 랭동기, 세탁기를 비롯한 가정용전기제품, 자동차 등에서 4 470만t의 전자폐기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4년의 조사때보다 8% 늘어난것으로 된다.

전자폐기물이 늘어날수록 재생리용할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것을 말해준다.

《도시광산》은 환경보호, 자원절약,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 대학의 연구집단이 추산한데 의하면 금이 쉬인 모래 1t에서 5g의 금을 채련할수 있지만 1t의 폐기된 뽐퓨터를 분해하였을 때 생기는 가루에서는 660g의 금을 뽑아낼수 있다. 또한 폐기된 손전화기 1t에서는 금을 400g, 은은 2.3kg, 동은 172g 회수할수 있다. 폐기된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금속의 품위는 천연광산광석보다 수십배 지어 수백배나 높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을 회수 및 재생리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손전화기의 회수체계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손전화기상점은 물론 사무청사에도 손전화기회수함이 설치되여있는데 거기에는 손전화기외에 수자식사진기나 충전기, 축전지 등도 넣을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매해 약 700만대에 달하는 손전화기가 회수되고있으며 그로부터 많은 량의 금과 은, 동, 알루미니움, 망간, 팔라디움 등이 얻어지고있다.

《도시광산》은 실지 《금을 낳는 나무》로 되고있다.

중국도 《도시광산》개발을 확대하여 많은 에네르기를 절약하면서 이산화탄소방출량을 대폭 줄이고있다. 국가급의 《도시광산》본보기거점들을 많이 건설하여 활발하게 운영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ㄱ-181179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